

학생 마음건강 지원, 전문기관과 힘 모아

도교육청, 위기학생 통합지원 위한 병원형 Wee 센터·정신건강전문가 긴급지원팀 선정 병원형 Wee 센터 전북대병원 등 2곳·정신건강전문가 긴급지원팀 대자인병원 등 3곳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생 마음건강 지원'을 2026년 10대 핵심과제로 추진하는 가운데 위기학생 통합지원을 위한 병원형 위(Wee)센터와 정신건강전문가 긴급지원팀을 선정했다. 전북교육청은 '병원형 위센터'에 전북대학교병원과 원광대학교병원을 선

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병원형 위센터는 고위험 학생의 상담·치료·대인교육 인스톨 서비스를 통해 건강한 학교생활 복귀를 돕는다. 소아청소년정신건강전문의 진료를 출석으로 인정받아 통원 및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학교에 정신건강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심층평가 및 컨설팅을 지원하는 '정신건강전문가 긴급지원팀'은 기존 전북대학교병원, 원광대학교병원에서 올해 대자인병원을 추가 총 3개 기관을 운영한다. 이 사업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에 대한 학부모 선입

견 및 의료 취약 지역 거주 등으로 병원 연계가 어려운 위기학생에 대해 정신건강전문가가 학교와 유관기관을 연계해 사례관리를 지원하는 것이다. 정미정 민주시민교육과장은 "학생들이 불안이나 외로움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느끼는 마음건강 지표가 악화되고 있다"며 "병원형 위센터와 정신건강전문가 긴급지원팀 운영으로 우리 학생들의 건강한 마음을 성장시키는 회복탄력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도내 교직원들, 국립군산대 대학원 진학시 장학금 혜택

전북교육청-국립군산대 대학원 진학지원 업무협약 체결 매학기 30~50만원 장학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국립군산대학교 대학원에 진학하면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전북교육청은 27일 국립군산대학교 대학원(원장 권봉오)과 '내국인 진학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교직원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실질적 협력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6월 전북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국립군산대학교와 '교육협력 선포식'을 개최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교육 생태계 구축을 위해 교육협력관을 파견했다.

특히, 이번 협약은 교육협력관 제도를 통해 초·중·고등교육과 고등교육의 실질적 교육협력력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협약에 따라 도교육청 소속 교원 교육전문직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원과 각급 학교 교직원은 국립군산대 대학원 진학시 올해 1학기부터 등록금 금액에 따라 매학기 30만~50만 원을 지원받는다. 현재 재학중인 경우도 해당된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국립대에 파견된 교육협력관 제도를 활용해 대학원 진학 지원 협약을 체결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전북 지역 교직원의 전문성 개발을 위해 앞으로도 더 많은 대학과의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국립군산대, 해양·수산 인력양성 성과보고회

국립군산대학교 RISE사업단은 최근 국립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이노테크홀에서 UPRISE 새만금 기반 해양·수산 인력양성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2025년도 해양·수산 분야 RISE사업의 추진 성과를 종합적으로 공유하고, 교육·학생·산학협력 연계 프로그램 운영 결과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사업 참여 교원과 학생 관계자 등 약 50명이 참석했다.

성과보고회는 과제책임교수인 유현희 교수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교육진흥팀 성과보고(식품영양학과 이정희 교수) △학생진흥팀 성과보고(식품영양학과 두미애 교수) △기업진흥팀 성과보고(식품생명공학과 임승용 교수) △직업상담 및 자유로운 순으로 진행했다.

각 팀별 성과보고회에서는 해양·수산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 현황, 학생 참여 비교과 프로그램 성과, 산업체 연계 및 산학협력 추진 결과 등이 공유됐으며, 이를 통해 해양·수산 분야 인력양성 사업의 전반적인 추진 성과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립군산대 유현희 교수는 "이번 성과보고회는 해양·수산 RISE사업의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차년도 사업 고도화를 위한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지역 산업과 연계한 현장 중심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산=김만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출마예정자인 이남호(가운데) 전 전북대학교 총장이 27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전북교육 도덕성 회복을 위한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전북교육감 출마예정자 3명 "표절 천호성, 해명대신 책임"

사실상 '불출마 선언' 한소리 요구

기고문·칼럼 상습 표절 논란에 휩싸인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를 두고 전북교육감 출마예정자들이 사실상의 '불출마 선언'을 한소리로 요구했다. 유성동 좋은교육시민연대 대표 이남호 전 전북대학교 총장 황호진 전 전북교육청 부교육감 등 전북도교육감 출마 예정자 3인은 27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교육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상습적 표절 논란 당사자인 천호성은 더 이상 변명과 해명 대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일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 대표는 "민약 한 학생이 답지를 베꼈다 응서를 받고도 계속해서 다른

시험에서도 답지를 베꼈다면 교사는 몇 번을 더 응서하고 난 겁이줘야 하나"며 "또 그런 학생의 반성이 진심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 만약 도교육감 출마를 선언한 분이라면 어 땡졌는가.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황 전 부교육감은 "교육감이 되려는 자가 상습 표절을 일삼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표절을 공격하고 자신은 재차 표절하며 이를 가법게 여기는 것이 드러났다"면서 "정직과 바른 인성은 교육의 기본 바탕이다. 우리 세 명은 적어도 교육감에게는 도덕성이 전제돼야 함을 천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

다"고 밝혔다.

이 전 총장도 "오늘 이 자리는 전북교육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덕적 기준과 공적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한 자리"라며 "천 교수는 관행과 실수는 단어 뒤에 숨어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다. 지금이라도 공공교육 앞에 책임지는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마 예정자 3인은 "천 교수는 반도덕적 행태에 대해 진실로 반성하고 다시 사과하라"며 "또 전주교대는 천 교수 집필물에 대한 전수조사와 엄정 조치에 착수하고 단일화 후보군에 등록된 전북교육개혁위원회 역시 이번 사태에 책임 있는 입장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스

'모두가 존중받는 학생 중심 특수교육' 추진

전북교육청, '2026 전북 특수교육 운영계획 설명회' 등 개최

모두가 존중받는 학생 중심 특수교육을 교육 비전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올해 특수교육 운영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전북교육청은 27일 전주평화회관에서 2026. 전북 특수교육 운영계획 설명회 및 2026.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계획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전에 진행된 특수교육지원센터 설명회는 14개 지역의 특수교육지원센터 업무 담당자 100명이 참석했다.

14개 시·군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장애학생 조기발견을 위한 진단평가부터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전달까지 특

수교육 실행의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다.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를 위해 순회교육 및 통합교육 지원 장치가 의심되는 영유아의 조기 발견, 진단·평가 및 선정·배치,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진로직업교육 및 장애학생 인권보호, 장애특성별 거점센터 운영 등 지역 기반 맞춤형 특수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오후에 진행된 특수교육 운영계획 설명회는 도내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업무 담당자, 교육전문직원 등 35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주요 특수교육 정책 안내로 진행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대, 총학생회와 생활관 문제 해결 원칙 '합의'

작년 수준 내국인 학생 생활관 입주자 수 유지

최근 발생한 전북대 전주 캠퍼스 생활관의 내국인 학생 입주 문제와 관련, 전북대학교와 총학생회가 내국인 생활관 입주자 수를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전북대는 지난 28일 오후 1시 양오봉 총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교수와 총학생회 회장단(회장·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내국인 학생들의 주거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올해 급증한 외국인 학생 수요에 대응하면서도 내국

인 학생 배정을 확대하기 위해 전주캠퍼스 내 일부 생활관의 수용 인원을 늘리고 후산건지하우수를 생활관 전용 시설로 활용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외국인 학생 전용 수용 방침으로 논란이 됐던 잠깐에 내국인 학생들이 대폭 입주할 수 있도록 한 점이 이번 합의의 핵심이다. 전북대와 총학생회는 내국인 학생 입주자 수를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도 해결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김재훈 기자

맞춤형 고용서비스 성과 '인정'

우석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연차성과평가 '우수'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 대학일자리본부(본부장 박노준) 한국고용정보원이 주관한 2025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연차성과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를 획득했다.

이번 평가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등 4개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우석대학교는 대상별 맞춤형 진로·취업 지원 체계 구축과 안정적인 사업 운영 성과를 높이 평가받았다.

지난해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본부는 재학생을 위한 진로 설계 및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비롯해 졸업생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지원하는 특화 프로그램과 고교생의 조기 진로·취업 탐색을 위한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운영했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 대상별 맞춤형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과 진



로·취업 지원 인프라 고도화, 통합 고용서비스 체계 구축,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연계 서비스 강화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박노준 총장은 "이번 연차성과평가 '우수' 등급은 재학생과 졸업생, 고교생은 물론 지역 청년까지 아우르는 맞춤형 고용서비스 운영 성과가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생애주기별 진로·취업 지원을 더 강화해 청년들의 실질적인 취업 경쟁력 제고와 지역사회 상생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원주=염재복 기자



전북대학교는 지난 26일 오후 6시 대학본부에서 카이스트와 'AI 거점대학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AI 분야 인재양성과 연구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정부 AI 거점대학 육성 '맞손'

전북대-카이스트, AI 공동교육과정 개발 등 협력키로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정부의 AI 거점대학 육성 정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카이스트(총장 이광형)와 손잡고 AI 교육·연구 역량 강화에 나선다.

전북대는 지난 28일 오후 6시 대학본부에서 카이스트와 'AI 거점대학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AI 분야 인재양성과 연구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AI 거점대학 육성 정책에 발맞춰 AI 교육·연구 역량을 고도화하고,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대학은 각 기관이 보유한 교육·연구 인프라이를 기반으로 실질적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AI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양 대학은 AI 공동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과 AI 핵심기술 및 전략 분야 공동연구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AI 연구성과 사업화 및 창업 지원, AI 대학 간 교육·연구·행정 운영 협력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북대는 이번 협약을 통해 양 대학의 AI 분야 핵심 역량을 결합함으로써 국가 AI 경쟁력 강화는 물론 지역 혁신 기반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이번 협약은 AI 거점대학 육성 정책을 대학 간 협력으로 구체화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카이스트와 함께 AI 교육과 연구의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들어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호원대, '2025 RISE&상생사업 성과공유회' 개최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는 27일 오전 11시 교내 문화체육관에서 2025 호원대학교 RISE & 상생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 지역혁신과 지·산·학 상생의 거점 대학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대학·지자체·산업계가 협력해 추진해 온 지난 1년간의 RISE 및 상생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협력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대학 주요 보직자를 비롯해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시 관계자, 지역 유관기관 관계자, 재학생과 교직원, 시민 등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강희성 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호원대학교는 교육기관의 역할을 넘어 지역사회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지·산·학 동행'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해 나가겠다"며 "지역과 함께 하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상생사업 추진 결과 보고를 시작으로 우수과제 시상식, 성과 홍보 영상 상영, RISE 사업 4대 트랙별 우수성과 사례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이와 함께 공연미디어학부의 어린이 뮤지컬 공연과 K-컬처 퍼포먼스팀의 축하 공연이 더해져 행사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또한 행사장에는 사업단별 상설 체험 부스가 운영돼 드론 콘텐츠 제작 등 대학의 특성화 성과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다. /군산=김만호 기자



호원대학교는 27일 오전 11시 교내 문화체육관에서 2025 호원대학교 RISE & 상생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 지역혁신과 지·산·학 상생의 거점 대학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